www.tphtoyota.com
토요타 테스트 드라이브 전국 동시 실시
SMART FESTIVAL
| 2016년형 NEW 캠리 하이브리드 출시 |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26호 1판 (음력 10월 14일)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시아문화전당 오늘 공식개관

총리·5國 장관 참석 개관식

평화교류원은 내년 문 열어

'광주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25일 공식개관한다. 〈관련기사 3·8·17면〉

지난 9월4일 착공 10년 만에 문을 연 문화전당은 공식 개관식 이후에는 그동안 확충한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와 주요 시설과 공간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25일 오전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아시아를 품은 빛의 숲'을 주제로 공식 개관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공식 개관 이후 문화전당 4개원(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은 전면 개방돼 시민들을 맞이한다. 단, 콘텐츠 구축이 늦어진 민주평화교류원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아시아문화 창작·교류공간'을 표방한 문화전당은 개관에 맞춰 국제적인 행사를 열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들은 광주에서 25일 제2회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전당의 공동활용 방안을 찾는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문화포럼에서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전주, 이천 등 국내 5개 유네스코 창의 도시들간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된다.

문화전당에서는 25~26일 글로벌 석학 특별강연도 열린다. 특강에는 '컬처코드'의 저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 아키타이프 디스커버리 월드와이드 회장과 존 웰치먼 미국 마이크켈리예술재단 감독 등이 참석한다.

같은 장소에서 26일까지 열리는 '2015 아시아 문화포럼'에는 프랑스의 지중해문명박물관 뮤셈(MuCEM)의 장 프랑수아 슈네 관장을 포함해 16개국 전문가 42명이 참가,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주제로 논의한다.

문화전당은 전체 부지면적 13만4815㎡, 연면적 16만1237㎡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전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관 이후 5년 가량 지나면 문화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을 알리는 대형 애드벌룬과 현수막이 광주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5일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표적 인프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혈세 수천억 날리고…F1 정리절차 돌입

전남도, 내년대회 개최권료 지급 신용장 개설 않기로

대회 미개최 책임·위약금 FOM과 치열한 공방 예고

F1 조직위원회가 이달 말로 시한이 돌아오는 2016년 F1대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긴 F1 대회에 대한 정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5·2016년 F1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험난한 위약금 협상도 예고되어 있다.

F1 조직위는 24일 "위약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대화가 단절된 뒤 최근까지 FOM측으로부터 내년 대회 신용장 개설이나 위약금 협의와 관련된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F1조직위 측은 FOM측이 2016년 대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개최권료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지난 7월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위약금 협상은 물론 내년 대회 준비 역시 중단했다. 이달 말까지 해야할 신용장 개설도 물 건너간 상태다.

FOM과의 계약상 마지막인 내년 대회까지 취소되면서 연말 또는 내년 초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위약금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5년 대회와 관련 FOM 측이 올해 2월 F1 조직위에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볼 때 두 차례 미개최에 대한 책임을 F1 조직위에 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FOM은 지난 2월 "F1 대회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며 사실상 위약금을 물라고 주장한 바 있다.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약을 위반하면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액수는 지난 2월 말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F1 조직위의 설명이다. 위약금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FOM측의 반응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선 개최권료(4370만 달러)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용장을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F1 대회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체육과학연구원·한국자동차경주협회·한국자동차공학회 등은 F1 대회 개최 시 첫해인 2010년 7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11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연평균 159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F1과 관련 투자한 혈세는 모두 8752억원으로, 4년간 F1 개최 및 1년간 임대를 통한 수익이 1185억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는 7566억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6년 F1대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남도와 F1대회 주관사인 FOM간 수백억원대의 위약금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F1경주를 위해 영암군 삼호읍에 설치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새정치 현역의원 물갈이 시동

전국 조직감사 착수…비주류 일부 지역 거부 움직임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당과 246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조직감사에 착수, 현역의원 물갈이 작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당과 전북도당 등 비주류 위원장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 감사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25일부터 3주간에 걸쳐 각 조직이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당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역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역의 경우 이 감사 결과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전달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활동은 전체 현역 평가 배점의 10%를 차지한다. 현역의원 '20% 물갈이' 작업을 할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감사단은 당직자 51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얼마나 합류할지 모르지만 전북도당처럼 거부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 등과 이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0일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우리 전북도당에서는 거부하려 합니다. 각 지역위에서도 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거부할 뜻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국가장(國家葬) 공고

故 김영삼 前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영 결 식
-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14:00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마당

안 장 식
-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영결식 후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장례위원장 황교안

부위원장 김봉조 노태우 노재봉 노신영 노태봉 노창희 노태악 김종인 김종표 김학원 김재순 김수환 김수한 김수진 김수동 김수남 김수녕 김수웅 김수학 김수한 김수용 김수원 김수길 김수동 김수복 김수근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수홍 김수환 김수한